



사찰서 점심 음악회? 달콤하네~



서울 종로 도심에 위치한 조계사는 인근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일주일간의 음악여행 칠일칠음(七日七音)'을 가을선물로 내놓았다.



'칠일칠음' 음악회에서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번갈아 연주됐다.



'아! 감미로워.' 부드러운 선율을 감상하는 직장인들.



조계사 신도회에서는 커피도 무료로 제공했다.

■ 조계사 일주일간의 음악여행 칠일칠음(七日七音)

빌딩이 숲을 이룬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인근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조계사는 편안한 쉼터로 산책코스다.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1시까지, 조계사 경내 소나무와 회화나무 아래, 곳곳 벤치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쉬거나 정담을 나눈다. 이렇다 할 프로그램이 없는에도 처마를 곱게 틀어올린 전통사 전각과 날직한 휴마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연꽃소리, 향내음이 발걸음을 이끈다. 조계사 바로 옆에 위치한 (주)대림산업 인사기획팀에 근무하는 전기홍(31)씨도 불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조계사 뜰을 거닐며 점심 휴식을 보낸다.

10월 25일, 전씨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왔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멈춘 곳은 조계사 대웅전 마당에 설치된 특설무대였다.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씨는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음악회를 경청하

는 풍경에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무대에서는 마노(manolo)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 뮤직(Eine Kleine Nacht Musik, 모차르트 곡)'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통이 살아 있는 조계사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채롭게 느껴졌다.

가을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선율에 취한 전기홍씨는 "시간을 쪼개 음악회를 일부러 찾아가기란 쉽지 않은데, 조계사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음악회를 열어줘 너무 좋다"며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조계사에서 클래식 음악을 접하니 느낌이 새롭다"고 감회를 털어놓았다.

■클래식·재즈·국악 등 다양한 장르 공연
조계사 인근에 사무실을 둔 불교단체 직원들도 음악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7일간의 음악회를 한번도 빠짐없이 들었다는 박현남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간사는 "교회나 성당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직장인들을 위해 사찰에서 음악회를 연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주변 직장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조계사의 변화가 무척 반갑고 기분 좋다"고 흐뭇했다.

전날인 24일에는 TV연속극 대장금의 주제곡인 '오나라'를 부른 박애리씨가 출연해 관객들을 맞았다. 찬불가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를 부를 때에는 "연꽃향기 어때요? 듣기만 해도 가슴 가득히 연꽃 향기가 전해지는 것 같죠?"하면서 청중들에게 박수를 유도했다. 또 자신을 판소리 소리꾼이라고 소개하면서 추임새를 아느냐고 청중들에게 묻고는 춘향가의 사랑가 중 '이리 오나라 업고 놀자'를 부르며 청중을 세 팀으로 나눠 판소리를 하는 도중 '잘한다' '좋다' '얼씨구'라고 추임새를 하게 하면서 청중이 참여하도록 했다.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케빈(Kevin·38)씨는 "한국의 판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단조로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흥미롭게 느껴진다"면서도 "스님이나 사람들이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음악회는 조계사가 창건기념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에 마련한 '일주일간의 음악여행 칠일칠음(七日七音)'이다. 조계사는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장르를 바꿔가며

공연을 준비했다. 첫날에는 국악, 23일 타악 연주, 24일 국악가요, 25일 클래식과 팝, 26일 크로스오버 국악, 27일 재즈, 그리고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장르를 가리지 않은 '회화나무 음악회'가 열렸다.

#신도회에서 청중에게 커피도 무료 제공

6가지 창건기념 프로그램 중에서 '칠일칠음'을 위해 조계사가 들인 공은 각별했다. 일주일동안 매번 다른 출연진을 섭외해야 하는 수고로움 외에도 조계사 종무원들은 근처에서 서성이는 직장인들과 신도들을 좌석으로 안내했고, 조계사 신도회는 음악회를 찾은 청중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다.

조계사의 이번 '칠일칠음'은 직장인을 위한 음악회를 정례화하기 위한 시험적인 성격이 짙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매주 한차례 음악장르를 바꿔가며 무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한국불교의 총本山 조계사는 도심에 위치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문화적인 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박봉영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직장인들 삼삼오오
조계사 뜰로 발걸음
넥타이 느슨하게 풀고
스트레스 내려 놓고
음악에 흠뻑 젖는다

금강약돌 온일복대

열침의 효능 — Health Belt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 식약청 의료기기 개인용: 053-00000
▶ 식약청 의료기기 전자기기: 053-00000
▶ 전기용품 안전 인증: 07233-50044호
▶ 전자파차폐인증: 전자파차폐인증
▶ 삼일화학(주)대림산업(주) 특허장 신물로도 최고

배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암은 열에 약하며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 열침의 효능: 열침은 인체 내부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단기간 건강 제품을 열침을 바치는 분에서는 복원에서 소량만이 생산되는 복원 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식품인 온일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온일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을 70-80°C 이상의 고열을 발산시켜 착용시 복부(오장육부) 깊숙히 강력한 복사에너지와 원적외선을 전달하여 등과 같은 열침을 갖는 효과가 있으며, 체내의 노폐물 배출과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주며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열매순환을 좋게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오늘날 각종 질병치료에 온일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암 등의 치료에도 온일복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온일복법은 이에 상응되는 의료가라 할 수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일복대의 효능

생리통, 변비,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 피부염, 복부지방 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 및 혈액순환개선, 신우조리, 스트레스스 중산, 숙취 등에 효과적이며, 특히 열매순환과 전이대행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물로 차게 하면 온일복대 착용 후 많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온일복대와 유사제품과의 비교 ●●●

비교내용	금강약돌 온일복대	유사제품(세라믹, 약한열 등)
전기열선온도	95-100도	70도미만
접촉면온도	1시간이내 70-80도, 1시간후 80도유지	50도미만
원적외선	유효파 40%이상 95%, 97%이상 95%가 방사됨. 인체에 유익한 파장인 10μm, 9μm이차일 경우는 인체의 효능 원소기 60%를 포함하지 않음.	유효파 40%이하 방사율이 95%이하이며, 9μm이차일 경우는 인체의 효능 소폭의 방사만 있음.
물리온	높을 300-4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낮을 100-200개의 음이온을 낸다.

문의전화: 금강당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